







# 그러게요, 도대체 취업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학교 취업준비생들에게 들어본 취업 고충 정부의 대책이 구조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두배를 웃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국내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37% 축소한다는 우울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기획은 우리 학교의 취업준비생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취업난과 고충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취업하기 어려워진 사회적 배경

## 바늘구멍같은 취업문, 대안은 없는 것인가?

### 청년실업의 심각성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월의 15~29세 연령의 실업률은 7.4%인 36만 6천명으로 전체실업률인 3.3%의 2배가 넘는다. 게다가 자발적 실업자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직자들도 줄어 후 취업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장기청년실업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 하는일 없는 정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때 8.8%까지 급등했던 실업률이 04년 이후 3.3%의 안정기조를 보았고 현재까지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 때문에 대기업의 신규인원 총원이 줄고 경력직·계약직모집이 늘어 청년층의 고용률이 이자금에 있어야 된 것이다.

현재의 7.4%는 외환위기 직후의 비슷한 수치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에는 정부의 책임을 물지 않을 수가 없다. 97년 이후 증거세를 보여온 청년실업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도 그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가 2000년부터 청년실업예상 예산을 배정하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과 맞물려 최근의 몇 년간 경기의 불안을 유도한 및 가지 사건들도 9.11테러, 이라크 전쟁, 유가파동 등 불투명한 대외여건·청년실업 문제를 강기화, 고착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자본파이 문제를 크게 만든다

실업난의 직접적 원인과 현대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한 전망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총 자본파이(GDP)'(이하 '투자율')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91년 39.8%에서 윤리간 투자율은 98

"학점은 얼마나 인정되는 거죠?" "서류전형에서는 최종 학점자의 몇 배를 봅고 있습니다?"

"한교마다 미술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답입니다?"

질문들이 쏟아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취업직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듣기에는 다소 유치한 질문처럼 느껴질 질문들이었다. 지난 5일(금) 대학원에서 진행했던 취업설명회는 어떤 동네의 공간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열기 또한 어느 때와는 달랐다. 취업 때문에 지칠하는 사람들은 줄을 잇고 있다는 말이 그저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 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어떤 취업 준비생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역시나 취업이 어려운 유로... '로 취업준비나 바늘끼가 되고나니 곤란을 꿈꾸는 여유가 없었던 까닭이다. 그들에게 들어온 청년실업의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이었다.

### 학문도 취업을 위한 방편

내년 여름에 졸업할 예정인 김윤재(상경·무역 99)군은 김군에게 청년실업의 원인을 물었다. "수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다소 상경계열 다른 대답을 하는 그는 "그에도 학생이 어느 정도 되고 자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다들 취업하는 것 같다"며 청년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지적했다. 요즘은 '취업을 위해 꿈나를 더 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었다'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녀야 하는 학문이 취업을 위한 방편이 되는 암울한 현실을 전했다.

### 또 한번의 차별, 여성취업 준비생

"작년에는 취업이 아닌 인턴과 함께 해서 고시준비도 했었다"는 김주연(상경·경영 99)양은 취업하기가 고시학과(?) 되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김양은 이미 인턴사원으로 일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가진 그녀에게도 취업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탐아웃했다. 특히, 그녀는 여성으로서 겪는 불평등은 취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천

구가 겪은 경험을 끌었다. "모 중견회사에서 최종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여자 지원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구애를 맞추기 위한 것 같았어요. 남자지원자들에게는 사회경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면접처럼 질문하는 반면, 여자 지원자들에게는 구애 및 친구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질문도 몇 개 인하되라는 거예요. 결국 떨어졌죠. 뭐."

6

###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지

증진 구조적인 접근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99

### 정부대책,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

"하반기 채용 30% 줄었나"는 것은 지난 3월 대신문의 1면 머릿기사의 제목이었다. 대기업과 금융권 44곳의 감축계획은 취업생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학기로 학교를 졸업하는 취업준비생 이승준(자연대·전자정보 97)군은 "전통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그런 보도를 들어도 그저 똑같은 이야기 빙 الترك하고 있는지는 느낄밖에 들지 않는다"며 한숨을 짜었다. 이 군은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를 웃돌고 있는데 정부와 청년실업대책은 재정 투입에 의한 단기적인 차원이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좀 더 구조적인 접근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구조적 문제, 기업투자의 격감

"고기개요 도대체 취업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민족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첫마디이다. 정장 보수언론에서 따로 대처해온 것처럼 강성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고, 그러나 국내총총부자율(GDP)은 이 대체없는 실업난이 자신의 파업에서 오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 39.8%까지 치솟았던 투자율은 1998년 외환위기로 맞아 21.3%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 9년간 이후에도 투자율은 여전히 예전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일시적인 외부적인 문제기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는 신기유주의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투자'의 격감'을 요구했으며 이것은 결국 기업의 인재를 키우는 취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글쎄요. 협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라는 어느 취업준비생의 말처럼 앞으로의 취업대안은 꽂임없이 어려울 것 같다. 기려운 곳의 근처만 꽂여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것을 끌어주는 것이 활용될 시원할 것이다.

김경훈 기자

oeade01@hanmail.net

전공자식이 사망되며 취업난을 와이한 교육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의 증가, 마지막으로 이공계의 기사현상등 각종 공교육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대책의 30%가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생산효율성이 저하되는 찾은 직업을 우리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층의 절망적 실업상황이 범죄·자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확산되고 있다. 젊은층의 취업여기와 근로의욕과 삶의 질은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 및 자살의 가능성성을 높인다.

###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은 아직 오리무중!

일반적으로 같은 경지에 있는 경제·사회·문화·정치·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실업난은 청년의 청년실업난이 단순히 불경기 터이기보다는 구직자들의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차라리 실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낮지 중소기업에는 취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하는 노동력 수요구조에 교육시장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대졸자들이 전공지식이나 기술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대체로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대학의 교육은 유령무실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교육시장과 경제상에 기인한다. 일례로 현재 빙도체제 우려나 농지이전이 끌어가는 경제여건으로 높은 조제업, 특수업

의 노동자 수지는 그 기여율에 비해 텁텁이 모자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눈높이의 문제

중소기업의 구조난과 대졸자의 취업난이 공존한다는 것은 최근의 청년실업난이 단순히 불경기 터이기보다는 구직자들의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차라리 실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낮지 중소기업에는 취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하는 노동력 수요구조에 교육시장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대졸자들이 전공지식이나 기술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대체로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대학의 교육은 유령무실한 것이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에 따라 고학력자의 하향입으로

박승열 기자 park984@hanmail.net

## 어두운 곳을 밝힐 것입니다

# 취업정보센터, 2% 부족해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으로 대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학교에서는 어떤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학생취업정보센터와 졸업준비위원회를 찾아가 보았다.

학생취업정보센터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진로계획 및 취업준비 상담 △취업전시회 운영을 통해 매일 회관홀에서 개최되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취업季节을 위해 교과를 지금으로 협조하고 있다. 많은 학우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대처방안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을까?

용인배움터 취업센터에서는 "교동면의 문재이치 물리치료센터의 취업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취업 대상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리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취업특강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취업센터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통해 어떤 취업특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안에 대해 이상민(동·중국어 97)은 "98학년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문조사란 한 학생으로 너무나 흡족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당국이 취업은 학생들의 이직이 아닌 대학의 이익임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배움터 취업준비위원회에서는 학생주도로 취업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배움터 졸업준비위원회인 이상목(동·중국어 97)은 "지난 4월 17일에 '2003년 취업전략'이라는 강좌를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오는 10월 7일에는 모의 면접과 인·적성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밝혔다. 그는 "다른학교 취업프로그램에 비해 우리학교는 나쁘거나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취업프로그램이 개설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배움터 졸업준비위원회 이화상(정보산업공·디자인정보공학 96)은 "취업관련사업을 위해 취업센터를 도와 문서사무소로 흥보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공계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취업季节을 위해 교과를 지금으로 협조하고 있다. 많은 학우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단 지난 학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대학당

국에 제안한 취업관련 강좌는 이전학기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개설됐고, 내년부터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도 개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강좌의 세부적인 내용에 서 대학당국과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당국은 학생의 강사를 확보하는 쟁쟁한 교수진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원하고 있다. 서로 상적 평가제와 PASS/Fail평점을 인수하는 등 산하되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학생들에 입장차를 둔다는 것을 보이고 그 결과를 내렸을 것이다라는 말인 것이다.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이상şim(정보산업공·전자공학 97)은 "지난 4학년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인원을 뽑는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학당국의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스템을 펼친다'며

서로 다른 회사에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전부가 아니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직접 회사와 찾거나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

연세대 취업정보에서는 일년에 두 번 기업체를 초청하여 채용상담 인터뷰를 해보는 '연세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취업특강'을 열어 국내 회사는 물론 외국계 회사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면접 방법 등의 취업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박근희, 박지현 기자  
oedeeprise@hanmail.net

# 취업난에 몸살난 대학문화



*ihufsan*  
나만드는 인문학의 대학

# 함께 만들 어가요

www.

ihufsan.  
com

# 청년실업 돌파구 어떻게 찾을 것인가



## 대학교 사례

한양대학교 서울배움터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타 대학과 다른 특성화사업으로 이공계 여학생의 기업체 활동, 여성동문 CEA 초청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여학생 취업활동화를 위한 전문강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취업의 통합화를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취업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취업정보를 인수하는 등 산하되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학생들에 입장차를 둔다는 것을 보이고 그 결과를 내렸을 것이다라는 말인 것이다.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이상심(정보산업공·전자공학 97)은 "지난 4학년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인원을 뽑는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전부가 아니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직접 회사와 찾거나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

연세대 취업정보에서는 일년에 두 번 기업체를 초청하여 채용상담 인터뷰를 해보는 '연세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취업특강'을 열어 국내 회사는 물론 외국계 회사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면접 방법 등의 취업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박근희, 박지현 기자  
oedeeprise@hanmail.net

각 방향이 다른 학문이지만 학부 공부가 실무적인 요소는 뒤쳐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히 학점을 보정받기 위해서 전공 공부를 하고 교양 수업은 실용적인 내용인

가지다. 자신의 진정한 관심이나 관심이 무슨 컴퓨터나 경영쪽의 실용적인 수업보다 신경한다. 경영계열 바씨는 예전에 비해 공동체문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국내 회사는 물론

외국계 회사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면접 방법 등의 취업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지성미 기자 lan-freist@hanmail.net

MU 이후로 구조화 되가는 청년 실업은 대학 기의 경쟁을 벌여 왔다. 고교 때 우스კ소리로 돌아온 노는 대학생" 이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학년생들은 새내기들을 보고 "도무지 새내기들 같다"고 있다. 우리 때에는 틀리다"라고 말한다. 김형철(법·법학과 93)은 "학점에 목숨기기는 친구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지식인은 사회에 공급하는 역할로서 대

학은 본명 학업을 쌓아야 하는 곳에는 블립니다. 그러나 "경공공부보다 토익 토플점수가 더 잘 우선시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김형철(일본어 93)의 말이다. "방위로 근무하면서 2년 동안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라는 김형철군의 말은 고시를 준비하는 일이 고학년 새내기에게만 그치는 일은 아니란 것을 느끼게 했다. 인터뷰한 이들은 어문과 법학계열로 각

'실업, 벼랑 끝에 선 청년들'. 며칠 전 한 방송에서 나는 정말 알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를 담은 기획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주 차이로바이트를 하는 젊은이. 집에는 취업 했다고 숨인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는 젊은이 모습이 우리를 아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열악한 고교 청소년층 실

업에 대한 대처는 더욱 미흡하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실습하는 연수제도 대

기업, 공공기관 비정기적인 등으로 현장되

고 있으므로 실제 직업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진로지도가

잘설명해도 실업에 고교와 연계하여 이를 지원하는 진로정보센터 등의 문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기적적 대처가 아니라 보다 질적적이다 근본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유기적

인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청년층 실업은

결코 노동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지금은 학교와 가정이 떠로 분리

된 상태에서는 변화, 환경에 적응하기 어

렵다. 대학교와 산업체 현장의 수요에 요구

되는 교과과정으로 변화하기 어렵다.

둘째, 노동시장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

대학은 구구대신이 물리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

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산업체 현장에서의 인력요구와 학교 교육과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학교 교육이 산업체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고급 실업자의 양산 원인은 과거 고졸자

의 일자리에 대졸자들이 진입하는 현상이

기술회복되고 3D업종 등을 적용한 현장화로

제공하는 대학이 늘어나니 더욱 악화하고 복

잡적인 일자리가 되어 일자리가 많아지기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자리 등 근로조건

이 차이는 쉽게 경계선으로 눈을 돌릴 수

없게 한다. 특히 신규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늘어나니 더욱 악화하고 복

잡적인 일자리가 되어 일자리가 많아지기

않았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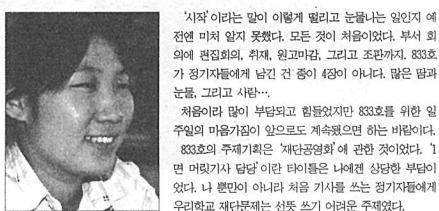
제공하는 일자리가 대체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이 대체로 고용하고자



외대학보 833호 비평

## 조심스런 시작, 내사랑 &lt;외대학보&gt;



'시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멀리고 눈을 나는 일인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부서 회의에 편집회의, 취재, 원고마감, 그리고 조판까지, 833호가 정기기사를에게 낮긴 전 풍이 4장이 아니라 많은 편과 눈을, 그리고 사랑...

처음이라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지만 833호를 위한 일주일의 마음가짐이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833호의 주제기획은 '재단공연회'에 관한 것이었다. 1면 머릿기사나 담당 이란 타이틀은 나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나 뿐만이 아니라 처음 기사를 쓰는 청기자들에게 경우우리하고 재단문제는 선뜻 쓰기 어려운 주제였다.

취재에서도 어려움을 느꼈고 기사를 쓸 때도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예산으로 좋은 품을 들었지만 우리의 부족한 면을 지적해줄 높지도 않았다. 주제기획 4면의 기사를 읽고 '우리하고 재단의 한 상관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사를 잘 썼다고 칭찬해준 선배가 있었는가 하면 같은 곳과 친구는 '3주체가 학부의 재단공연회가 치러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뭐고 문제는 뭔지, 기사를 읽고도 잘 이해되지 않아'라고 평했다.

물론 우리가 '재단문제'에 대해 쓴 것은 우리하고 학생들에게 재단문제에 대해 인식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만은 생각하면서 외인장을 되도록 생각하나 문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배경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쓰지 못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게 읽히는 기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독자들의 저작은 청기자들이 앞으로 기사 쓰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고마운 흥미가 됐다.

또한 윤인방부터 학생들에게는 도대체 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신문에서만 떠드느냐는 말도 듣게 됐다. 서울대에서 총학생회장 윤복래(사회·신문방송 96)군과의 인터뷰에서 여전성의 문제 때문에 윤인방에게는 투쟁을 같이 해온지 않지만 '재단공연회에 대한 뜻은 같다'고 말한 것이 독자들의 의문에 대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833호 힘들게 낸 신문이었다. 독자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도 받고 싶지만 '학보를 읽고 질타 해주는 독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우리는 수습지지 면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정기기자이다.

부지런 기자

## 혹상의 소리

## 도서관 사석화 방지를 위한 제안

글을 받습니다

지적: 고려(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재단 일정 / 해수: 2003년 9월 4제 미화 / 미감: 매주 금요일 자정  
등록번호: 학생기사실(학번회원 26)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ex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기관에는 부정이나 비난하는 절차에 전자우편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들은 소정의 친고료를 드립니다.

## 학부제에 관하여

이유로 가지고 올라 다니기 힘들다는 이유로 책에 책을 치우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사용한 자리에 배점받지도 못한 사람들의 예의가 아닐 것이다. 책은 7시부터 8시까지 옆으로 차운다면 아니면 도서관나무실에 치우면 책 것이다. 이 모든 도화와 주제가 되어온 책 것이다. 그렇다고 도화와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런 수고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책을 치우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아침 7시에 8시까지 치우는데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책과 족과 함께 전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도화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도서관 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도서관 사석화를 방지하는데 이 정도는 비용은 아니라 고생이다.

7시에서 8시까지로 시간을 정한 이유는 그 정기 시간이면 충분히 멀리 사석화를 예방하고 도화를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책을 치우면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석화를 막기 위해 책을 옆으로 치우거나 책을 책으로 책을 배정받지 못해서 부서진 책을 놔두고 다른사람은 도서관 이용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모두 민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고 있었다. 도화와 족의 위 의견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김태국

(성경·경제 97)

'학부제'란 말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에 책을 치우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사용한 자리에 배점받지도 못한 사람들의 예의가 아닐 것이다. 책은 7시부터 8시까지 옆으로 차운다면 아니면 도서관나무실에 치우면 책 것이다. 이 모든 도화와 주제가 되어온 책 것이다. 그렇다고 도화와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런 수고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책을 치우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아침 7시에 8시까지 치우는데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책과 족과 함께 전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도화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도서관 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도서관 사석화를 방지하는데 이 정도는 비용은 아니라 고생이다.

그렇다면 논의는 어떻게 두루가기 가능하고 더나아하는 학생들의 수고를 덜 수 있고 또 사석화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책이 많이 밟아거나 새벽에 책을 놔두고 다른사람은 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책을 사석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학생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석화에 있어도 불구하고 책이 많다는

부제로 인하여 즐거운 입학장학으로 우수한 학생유치에도 어려운 점이 생겼다. 또한 '전공희소학점인증제'로 인한 전공교과이 부설화 되었다는 것을 모두들 아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점은 지금 현 대학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학부제의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단점은 하루 리도 빨리 고쳐나가서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송민수

(정보산업·전기정보공학 02)

## 변하지 않는 외대학보

## 조속히 폐지해야

- 폐지론자

• 을아버지 화내시겠네	• 아싸!	• 노브레이
- 신규관 유상	• 드디어!! 나도 서명했었는데	- 쿠쿠
•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왜 존재하는 건가?	• 그럼 이제 뉴질랜드를 살ishi 제 폐지안을 발 표했는데...	- 개그의 추억
- 신자식인	• 한창!	- 단무지
• 아하! 그럴구나!	• 이제 김미화 박미화 할 수 있겠네?	- 도레미 트리오
- 도레미 트리오	• 국회 통과만 하면 되겠군	- 연예부 기자
• 당연히 했어야 할 일! 참 잘한 것이다!	- (?)	-
- So what?	- 시비쟁이	- 풀아지씨
•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 참 잘했어요.	- 뿐미언니
- 강금실	- 지은희 + 강금실 = 호주제폐지!	- 여성매체
• 호주 민세	- 뉴질랜드	-

## 명상

##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감

이장희  
(법대 홍경)

시 노골적인 반복행위를 험으로써 대구 U대회 회에서 다시 비상이 걸렸었다. 대회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반복행위들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U 대회는 수준한 스포츠행사이며, 더구나 대회와 현장상 대회장에서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남측과 일부 보수단체가 대회 미디어센터 앞에서 북한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향의하는 북한 기자를 폭행한 것은 명백하게 U 대회장 위상이 저하된 것이다.

둘째, 본단 50여 명에 북한의 대구 U대회 참가는 단순한 하나님의 참가기이 아니라, 남북한 스폴츠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또 다른 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커졌다. 이번 대회 행사는 북한문제해결을 위한 북경의 6지회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회화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런데 일부 보수단체의 반복행위는 너무나

저돌적이며 민족이익추구하는 종합적인 면에서 시려 깊지 못했던 평가이다.

셋째, 만약 역사지지하여 평양에서 개최되는 U 대회에서 남북대표단에게 유사한 일이 발생할 시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수용할 것인지를 자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U대회에서의 반복행위는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과 이 지역 주민의 실망감을 증대시킬 뿐이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U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 물력, 금전적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북측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U-대회 남북 공동참여를 보도하기 위해 일국했던 언론인들이 따님 준비를 하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북측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많은 행사 관계자들, 시포터즈, 시민단체들의 실망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이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예상된다.

수 없는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다섯째, 북측이 U-대회에 불참을 했을 경우, 남측은 물론 북측도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민족적 지지감과 화합·제생산을 했을 것이다. 남측은 이념적 분별로 인한 상시 갈등 상황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많은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북측도 믿을 수 없는 국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알파한 베팅을 전개한 남북 경협을 통한 투자자 유치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 등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더 많은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성조기 소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동시에 '인공기 소각'도 반대한다. 지난 8·15 시장앞에서 있었던 보수단체들의 '반·반김' 집회에서 발생한 인공기 소각 사건에 대해 노루대통령이 8월 19일 '인공기 소각 유감' 발언을 한 것은 국민과 민족이익을 중앙으로 고려한 적절한 대처였다고 본다. 향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자사의 입장에서 남북 당국은 민족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좀더 성숙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박세열(서양·포르투갈 98)

그리고는 2003년 나는 한 과의 과회장이 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WTQ 교육개혁”

1. 등록금 폭등  
국가의 역할을 '시장'이 대신함에 따라 교육비가 큰 폭으로 오름.
2. 교육의 공공성 붕괴  
국가가 공적인 지원을 철회하고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나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서 국
3. 교육의 불평등 심화  
국가의 공적자원이 철회됨에 따라 교육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
4. 학문의 종속화 심화  
집단화하면서 교육의 복불변을 심화.
5.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지게 돼 국내에 필요한 인력, 지식 연구의 생산력이 떨어짐.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